

자본주의 폐해 해결책은 '깨어있는 자본주의'

‘돈 착하게 벌 수는 없는가’

존 매키·라젠드라 시소디어 지음

여기 한 기업의 사례가 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내용이다.

2007년 12월 13일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오후, 미국의 코네티컷 주 웨스트하트포드의 홀푸드마켓 매장에서 계산대가 작동이 멈췄다. 매장을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탓에 시스템 통합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계산대 줄이 점점 길어지자 매장을 관리하던 부팀장이 팀원들과 상의해 방안을 결정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객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려면 계산을 빨리 해야 했다.

김벌리 홀 팀장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계산대 고장으로 생긴 혼란은 분명 우리 잘못이었고, 고객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일일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 있었던 일이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기도 하다.

앞의 이야기에 훈훈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본가가 벌 되고 있는 시스템을 온전히 지지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하기에는 자본주의가 너무 많은 부작용과 폐단을 보여주었다.

홀푸드마켓의 CEO 존 매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할 해결책 또한 ‘자본주의’에서 찾아야 함을 역설한다.

홀푸드마켓의 공동설립자 존 매키와 ‘깨어있는 자본주의’연구소의 공동설립자 라젠드라 시소디어가 펴낸 ‘돈 착하게 벌 수는 없는가’는 자본주의의 본래적 기능을 성찰한다. 이들은 긍정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단순한 복지 향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단편적인 차원이 아니다. 2008년 다보스포럼에서 빌 게이츠가 제시한 ‘창조적 자본주의’, 즉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는 정도에도 국

한되지 않는다.

저자들이 삼장하는 대안은 ‘윈6’에 닿아 있다. 고객, 직원, 투자자, 협력업체, 공동체, 환경이라는 여섯 개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해답을 내놓는 것이다.

얼핏 이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관건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가의 문제다.

그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과 연계된다. 존 매키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선하다는 생각을 견지한다. 물론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다.

그 역시 1970년대엔 다른 젊은이들처럼 정부와 기업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정부는 무능하고 기업은 사악하며 협동조합은 참의상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관점에 변화가 온 건 하이테크, 미세스, 프리드먼 등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책을 섭렵하면서였다. 비록 자본주의와 기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또다른 계기는 1981년 5월 홍수로 인해 홀푸드마켓 매장이 침수되었을 때 찾아왔다. 고객, 직원, 공급자, 투자자의 도움으로 28일 만에 기적적으로 매장 문을 다시 열면서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후로 홀푸드마켓은 관계자들 모두에게 득이 되는 비전 ‘미래 탐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평등한 복리후생과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추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 사들을 존중했다는 점이다. 공급업자들과 윈윈 파트너십을 유지함으로써 ‘갑을관계’ 극복에 나섰다. 한 마디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착하게’ 돈 버는 법을 고안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대를 초월한 일곱 작가들에 배우는 사랑

‘사랑수업’

로시오 까르모나 지음

마르케스부터 하루키까지 시대를 초월한 일곱 작가들이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를 묶은 책이 나왔다. 스페인 출신 작가이자 가수인 로시오 까르모나가 펴낸 ‘사랑수업’은 열여섯 살 소녀가 위대한 일곱 편의 문학작품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소설은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가 일곱 편의 문학에 담긴 사랑 이야기를 읽어가며 의미를 찾는다는 내용이다. 담당 교사는 소녀에게 각기 다른 일곱 편의 소설을 읽고 매 편마다 에세이를 써오라고 지시한다.

소녀가 읽는 세기의 작가들의 작품은 서로 다른 어조로 사랑을 이야기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국



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은 감수성 넘치는 언어로 첫사랑에 관한 단상을 이야기한다. 이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사랑에 있어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말한다.

소녀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미지의 여인’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 일방적 사랑의 애달픔을 알게 되며 볼스토크의 ‘안나 카레리나’를 읽고는 조용한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는 비극적 사랑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며 샤롯데 브론테의 ‘제인 에어’에서는 용감한 사랑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는 어긋난 사랑의 비극을 보게 된다.

〈알에치코리아·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선비들에게 한시란 풍류 아닌 삶이었다

‘한시의 품격’

김풍기 지음

선비의 삶과 사상을 담은 한시를 독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힘써 김풍기 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한시의 품격’을 펴냈다.

저자는 조선시대 주류 문화인 한시를 바탕으로 조선 지식인 사회와 문화를 읽어낸다. 사대부의 시뿐만 아니라 속세를 벗어난 승려의 시, 신분의 불평등을 문학으로 승화한 중인들의 작품까지 폭넓게 들여다보는 건이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조선 지식인에게 있어 한시란 풍류의 한 자락이 아닌 삶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한시는 선비에게 지식의 감옥과도 같은 분야였다. 한시를 짓는 능력은 사대부 커뮤니티에 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었다. 행색이 허름한 선비가 시구 하나로 상석에 앉아 명주를 얻어먹은 일화는 비일비재하다.

이와 달리 당대에 한시는 그저 난해하고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비들이 즐기는 오락의 한 부분이기도 했다. 선비들이 시회를 열어 다양한 음식 맛으로 풍류를 한 건 이 때문이다. 또한 저자의 시선은 고상한 듯 보이는 한시의 세계뿐 아니라 한시와 관련된 이들의 사소한 일상사까지 생생하게 포착한다. 이는 자연스레 ‘옛사람의 시를 보는 눈’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선비들이 추구했던 한시의 세계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창비·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개인들의 불안, 바깥 세계와의 대립

‘그럼 무얼 부르지?’

박솔희 지음

2009년 장편 ‘울로 자음과 모음’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박솔희의 창작집이 출간되었다.

그동안 장편과 단편을 넘나들며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해온 작가는 평단과 독자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데뷔작이 보여준 낯설고도 기이한 매력은 이번 작품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제작 ‘그럼 무얼 부르지?’를 비롯한 7편의 단편은 대부분 무기력해 보이는 개인들이 바깥 세계와 대립하는 구도로 짜여져 있다. 이들 개인들은



하나같이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결여한 채 바깥 세계로부터 불어오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흔히 부조리극에서 보이는 불안과 무위의 상황 설정은 독자의 감정을 휘저으며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작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법을 구사한다. 기성의 관념, 정형화된 언어에서 비껴난 소설은 부조리극이 상연되는 무대로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지음과모음·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치사회사적 맥락에서 본 형사재판

‘한국 근대 형사...’

도면희 지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를 정치사회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책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가 출간됐다.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을 역임했던 저자 도면희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법학이나 법제사적 분석에만 한정하지 않고 개화가 한국의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갈등을 중시해 놓고 형사재판제도의 변화를 분석했다.

책은 근대적 형사재판제도의 도입 과정을 감오개혁 이전, 감오개혁과 독립 협회운동기(1894 ~ 1898), 전제군주



정 시기(1899~1905), 일제의 한국 주권 침탈기(1905~1910) 등 네 시기로 나눠 시기마다 형사재판 제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을 고찰했다. 저자는 특히 1899년 이래 대한제국이 전제군주정을 추구함에 따라 재판 기관이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관의 민중심에 놓고 형사재판제도의 변화를 분석했다.

〈푸른사자·3만7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인쇄된 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책의 탄생’

앙리 장 마르탱 지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책은 인쇄된 책이 탄생한 이후 당시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핀다. 서구 유럽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책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면밀하게 고찰하는 것이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책의 탄생은 전반부에서는 필사본 시대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해 인쇄된 책이 출현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다. 후반부에서는 책의 출현 이후 새로이 등장한 출판관계에서의 작업 양상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종교개혁 당시와 15~16세기 이후 서구 유럽에서 모국어의 기틀이 잡히기까지 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들배개·3만8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간

▲보이지 않는 이웃의 살인자=적십자사 간호사 니나 보르 시리즈 두번째 책, 니나 보르 뿐만 아니라 집시 혼혈로 사회의 편견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법대생, 범죄와 싸우는 일에 인생을 바쳤지만 이제 지쳐가는 경감까지,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생동감 넘치는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가득하다. 현대사회의 인간성의 해부하는 첨예한 시선과 부서져가는 세계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을 그린 휴머니즘 스타일이다. 〈문학수첩·1만4800원〉

▲수학과 세계=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일, 놀라운 일, 계산할 수 없는 일과 마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루돌프 타쉬너 박사는 수학적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하늘의 현상에서 신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라플라스 이야기가 등 하늘과 예술, 생명과 경제, 빛과 도덕, 축구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주제를 수학의 눈으로 독특하게 바라본다. 〈알마·1만6500원〉

▲행복의 사회학=‘당신은 대한민국 몇 %입니까?’ 권력이 숨겨려고 하는 숫자와 통계로 살펴본 2014년 대한민국 행복 지도. 워킹 푸어, 재벌 독식, 비정규직, 실업, 경쟁 교육, 학벌 대물림, 저출산, 고령화, 가족 해체, 성장주의 등 2014년 한국 사회의 행복을 방해하는 핫이슈들을 구체적인 통계와 지표들을 기반으로 면밀하게 분석했다. 〈책읽는수요일·1만5000원〉



▲꽃들은 어디로 갔나=이상문학상 수상자가 서영은의 장편소설. 현실적으로 사랑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던 여인 호순. 그녀는 결혼이라는 숨 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만들어 낸 인과와 운명을 풀어낸다. 잠긴 문을 하나씩 열어가고, 설장 단지를 깨뜨려 자기 안의 의지를 깨치는 등 상징적으로 묘사되는 사랑의 여정을 통해 이들의 삶까지 깊숙이 들여다본다.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도 남녀의 사랑을 넘어선 깨달음의 경지를 이뤄냈다. 〈해비·1만3800원〉

▲에콜 드 파리 살인사건=일본 작가 후카미 레이치로의 예술 탐정 시리즈 ‘에콜 드 파리’는 제1,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파리를 중심으로 꽃피운 국제적 미술의 일과를 말한다. 도쿄에서 손꼽히는 아카츠키 화랑은 에콜 드 파리 화가들의 컬렉션으로 유명하다. 그 화가들의 비극적인 삶이 수집가에게도 전염된 것인지 바닷길 거센 어둠, 화랑 주인은 밀실 상태인 서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 〈한스미디어·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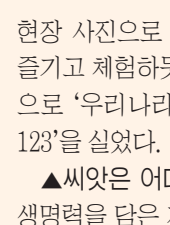
▲책과 혁명=‘고양이 대학살’로 잘 알려진 로버트 단턴이 이번에는 프랑스 혁명 전후 급서(禁書)의 목록과 당시 출판업계의 관행을 탐구한다. 치밀한 자료 조사와 흥미진진한 서술, 책의 역사와 프랑스 혁명을 아우르는 깊고 넓은 관점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저자는 포르노소설, 연애소설, 에스에프 등 사람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자극하는 도서들이 당시 사람들의 봉건적 인식체계를 뒤흔들었다고 본다. 〈알마·3만2000원〉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매일 심심할 틈 없는 당찬 꼬마 남자아이 용희의 바쁜 하루를 네 편의 이야기에 담은 동화책. 엉뚱한 과학 실험의 하루에는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재미와 아이들의 상상력을 간질이는 재치가 가득하다. 용희가 바라보는 특별한 세상을 따라가 보면, 아이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아이세움·1만원〉

▲티모와 함께하는 지구온난화 여행=건강한 지구를 위해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기후 이야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기후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태풍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후가 생명체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하는지 등 지구온난화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칭어미디어·1만2800원〉

▲한눈에 보는 교과서 과학=초등학교 교과서의 생명 색선 중 3~6학년까지의 식물, 동물, 생태계 관련 개념들을 총 정리해 주제별로



뒤어 놓았다. 생생한 그림과 풍부한 사진 자료를 통해 동식물의 종류를 나눠 보고, 동식물의 한살이를 알아보고, 동식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한솔수북·1만3000원〉

▲세계가 바뀐 우리 무형 문화재=가상의 무형 문화재 놀이동산을 통해 아빠와 함께 온갖 무형 문화재를 체험해 보는 책. 재미있는 설명과 생생한

현장 사진으로 사실감을 높여 아이들 스스로 즐기고 체험하듯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부록으로 ‘우리나라를 빛내는 중요 무형 문화재 123’을 실었다. 〈스콜라·1만2000원〉

▲씨앗은 어디로 갔을까?=자연의 거대한 생명력을 담은 자연 이야기책이다. 씨앗 열 개가 하나의 꽃을 피우는 과정 속에서 자연의 순환,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느끼고 수 세기 학습까지 담고 있다. 간결한 문장과 안정감 있는 배경에 씨앗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그림은 자연의 생명력과 씨앗의 일생을 따뜻하면서도 역동감 있게 표현했다. 〈주니어RHK·9000원〉

어린이 책꽂이